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5. 14.(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장 양우근 (044-960-618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044-215-45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담당자	조찬우 사무관 sogood5925@korea.kr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신기태 사무관 shinkt89@korea.kr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김진상 사무관 kjsi980@korea.kr 서지현 사무관 jjhopes@korea.kr 송하늘 사무관 sky4rok@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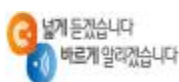
제목 :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5.14(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 제목만 공개)
- ②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중기부, 제목만 공개)
- ③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제목만 공개)
-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림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개최배경 】

제17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국민 모두가 회복의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 낸
지금의 빠른 경제 회복세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회복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고용시장의 회복흐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주에 발표된 4월 고용동향은 3월 플러스(+)로 전환된
취업자수(31.4만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65.2만명을 기록하여
'14년 8월(67.0만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개선폭 확대 뿐만 아니라
30~40대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전 연령층의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도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

아울러 민간 일자리 증가가
취업자 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며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촉발시킨
사회·경제 변화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
최대한 빠르게 위기 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기업애로청취 등 시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제도 안착 등을 병행하여
고용안전망 구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물가안정노력을 통해
일시적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란, 양파 등을 위시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일명 밥상물가가 서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과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회복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아

- ①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과 함께
- ②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공간 업그레이드를 논의하고
-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인
- ③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을
-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

첫 번째 안건은 주요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²⁾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가격은 아직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란 수입 확대, 쌀·배추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 안정 노력에 더해 양파·대파 등 주요 채소류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축산물 물가는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³⁾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의 경우 4대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4월말부터 6천원대 수준⁴⁾이며,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적용시 실제 소비자 체감가격은 약 5천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구입 빈도가 높아 물가 기대 심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물가를 보다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물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21.1~4월 물가상승 중 농축수산물 기여도 : ('21.1)0.79 (2)1.26 (3)1.08 (4)1.04

3)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전월비, %) : ('21.1)3.9 (2)5.2 (3)△1.5 (4)△0.5

4) (A마트)6,900원 (B마트)6,950원 (C마트)6,990원 (D마트)6,200원 (전체)7,374원

계란의 경우 1~3월까지 누계로 6,400만개, 4월 4,000만개에 이어 5월에도 4,000만개+ α 를 추가 수입⁵⁾하여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배추 등도 정부 비축물량 관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파와 양파 등도 산지출하 동향 및 생육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 이어 이번주 금융연구원과 KDI도 금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⁶⁾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과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 공공요금 관리 등을 통해 금년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 】

두번째 안건은 메이커 스페이스 효율화 방안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제조·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후 체험 중심의 일반랩 180개소와 직접적인 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소 등 총 192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5) 계란 수입 동향 및 계획: (‘21.1~3)6,400만개 (4)4,000만개 (5)4,000만개+ α

6) 4.15일 한은 금통위 총재 인터뷰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전망 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 다소 낮아질 것”

‘21년 소비자물가 전망치 : (한국금융연구원)1.8%(5.10일), (KDI)1.7%(5.13일)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교육 프로그램 등은 약 3만회,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건 이루어졌으며,
실제 장비·시설 이용도 약 136만건에 달해
일반인들의 창업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일반랩에 무게를 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문랩 위주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초 목표('22년까지 일반랩 350개, 전문랩 17개)를 수정하여,
일반랩의 추가 신설 대신
전문랩을 당초 목표 대비 2배 수준인 30개소까지 확충⁷⁾하겠습니다.

기존 일반랩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목공, 금속 등 특정 산업분야와 접목한
특화랩으로 육성하여 창업 지원 효과를 배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메이커 스페이스와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메이커 공간인
K-ICT 디바이스랩, 3D프린팅 지역센터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⁸⁾,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도 보강함으로써⁹⁾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7) 평균 구축비용은 전문랩이 일반랩의 약 10배 수준

8) 예: 메이커스페이스 참여자 대상으로 3D프린팅 지역센터가 교육 실시

9) 예: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업한 기업에 제조설비가 있는 창조혁신센터가 입주공간 제공 등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 】

세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3조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전기·수소차를 14만 9천대 보급하였고 전기차충전기 6만 4천기, 수소충전소 70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기·수소차를 11.6만대 보급하고 전기차충전기 3.2만기, 수소충전소 110기를 대폭 확충하여,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글로벌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20년 친환경차 수출 27만대¹⁰⁾’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렌트카·택배업체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친환경차 중심의 생태계 전환과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친환경차 수출 : ('18) 19.6만대 → ('19) 25.9만대 → ('20) 27.1만대, 출처 : 자동차산업 동향(2017-2020)

【 마무리 말씀 】

이번 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인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 위기로 인해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조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흔들림없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 높은 등급이며
영국(Aa3), 일본, 중국(A1)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의 강한 펀더멘탈과 견조한 대외 건전성에 따른
빠른 회복을 높이 평가한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재확인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회복·포용·도약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